

10 월의 사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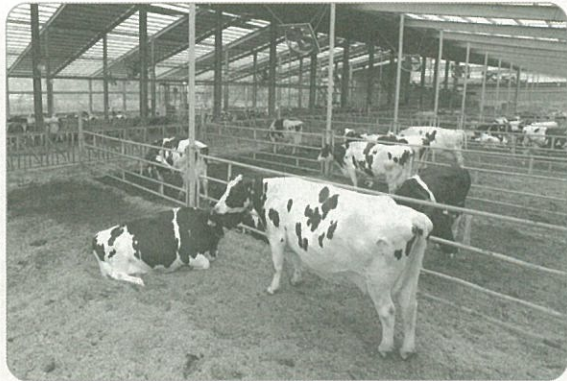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제공
집필자 :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김태일, 임현주

일반 사양관리

조사료와 농후사료 급여량 등 변경시 1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바꿔야 사료장애 예방

밤낮의 일교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고 야간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환절기이므로 송아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옥수수사일리지를 개봉하여 먹일 경우, 공기에 닿는 순간부터 2차 발효가 시작되므로 배출면을 수직이 되게 하여 공기가 사일리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 해주어야 한다. 개봉해 먹인 뒤에는 비닐로 잘 덮어 두어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해야 부패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지금은 월동용 조사료인 벃짚을 확보하는 시기이다. 1년 동안 안정적으로 먹일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확보하되, 비를 맞으면 기호성과 영양분이 크게 떨어지므로 비를 맞히지 말고 잘 말려 신속히 수거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지속적인 낙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후보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우수한 생산능력과 외모형질을 가진 개체를 선발해야 한다. 선발된 육성우의 사양관리는 생후 4개월령부터 6개월령까지는 일반적으로 중송아지 사료를 구입해서 급여하는 것이 좋고, 생후 6개월령 때에는 수송아지와 암송아지를 격리 수용해야 하며,



이때 구충제를 사용하여 내부 기생충을 제거하도록 한다. 생후 7개월령 부터는 영양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로서, 훌륭한 젖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골격과 근육발달,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생식기관 발달, 유방 용적 확대 등을 위한 육성우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토록 한다. 착유 우에 대한 영양소 수준 조절도 필요하다. 즉 여름철 고온기에 높여 주었던 영양소 수준을 계절에 맞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조사료와 농후사료 급여량, 그리고 종류 등을 변경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바꾸도록 해서 갑작스런 사료변경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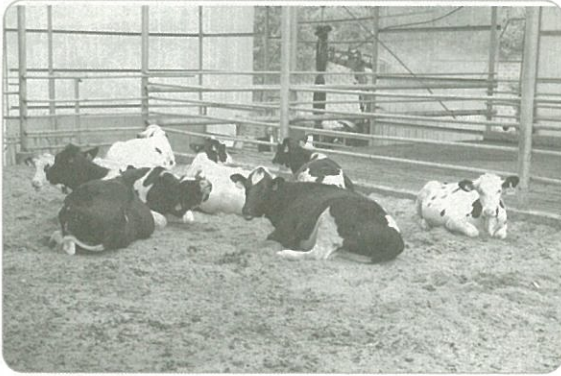
아울러 여름 내내 사용하던 그늘막, 스프링클러, 송풍기 등을 철거하거나 점검해서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 둔다. 바람직한 축사환경 관리를 위해 낮에는 햇볕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하고, 항상 통풍 및 환기가 잘되도록 한다.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착유기 부품을 점검해 보고 원유 여과망도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고능력우 분만 초기 건물섭취량 증가시키면 정상 배란 개시되며, 황체가 정상적인 크기로 발육해 생성능력이 증가됨으로써, 수태율 향상 기대돼

더위가 한풀 꺾여 소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여름철에 분만한 젖소의 경우, 하절기 고온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발정재귀 지연 등 저하되었던 번식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고영양분·고에너지 사료를 급여하여 고온기 때 부족했던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영양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섬유소 함량은 15~17%가 유지되도록 하며 빠른 기간 내에 건물섭취량을 최대로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번식관리





분만우의 경우, 비유 초기의 영양관리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산유량에 비해 건물 섭취량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체중이 감소하고, 산유초기에 에너지 부족이 너무 심하거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곧바로 번식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젖소 수정시기에는 영양관리를 잘해 주어야만 정상적인 배란 및 발정으로 수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분만 후 양질의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공급해 에너지 부족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능력우에서 분만 초기에 건물섭취량을 증가시키면 정상 배란을 개시하게 되며, 황체가 정상적인 크기로 발육해 착상호르몬의 생성능력이 증가됨으로써, 수태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분만우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젖소들의 영양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소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체총실지수(BCS)는 소의 영양 상태를 현장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며, 번식성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젖소의 경우에는 비유 단계에 따라 적합한 신체총실지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분만 후 신체총실지수가 1점 이상 감소한 소는 1점 이하 감소한 소에 비해서 첫 발정까지의 일수가 증가하고 종부시 수태율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신체총실지수가 0.5이상 감소한 소는 0.5이하 감소한 젖소에 비해서 분만 후 첫 발정이 늦고 수태율이 다소 낮아지는 등 신체총실지수와 번식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 최소 1개월 이내의 주기로 개체별 BCS를 측정함으로써 축군에 대한 전반적인 영양 불균형을 사전에 차단, 번식장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10월은 고온스트레스로 인해 여름철 누적된 요인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챙기고, 영양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양관리와 더불어 발정관찰 비율을 높임으로써 집중적인 번식효율 개선을 위한 노력할 때이다. ☺